

김선옥 교수,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상 수상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김선옥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선옥 교수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 열린 대한비뇨의학회 국제학술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광주지역 여성 전문의 단 1명 뿐

대회에서 '2023년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김선옥 교수는 학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며, 여성비뇨의학과 회원에 귀감이 돼 올해의 여성비뇨의학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2006년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광주·전남 제1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 기록을 갖고 있다. 전남대병원에서도 비뇨의학과교실 창립 35년 만에 첫 여성 비뇨의학과 전공의(2002년 입사)로 수련하는 등

여성 비뇨의학자로서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김 교수 이후에도 16년이 지나서야 전남대병원에 여성 전공의가 들어온 만큼 비뇨의학과는 '금녀의 영역'이었다. 남성 위주의 수련문화와 '여성이라 진료받기 낯설다'는 남성 환자들의 편견 속에서 김 교수는 "수련은 어디가나 힘들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남성 위주의 비뇨의학과에 첫 여성 전공의로 시작해 20여년 가까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문화와 환경의 틀에 '다름'을 첨가하는 것에 대한 '묵

묵한 인내와 지켜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적 식견과 함께 새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인 용단, 넓은 배려심으로 난생 처음 여성 비뇨의학자를 받아주셨던 은사님과 전남의대 비뇨의학교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배뇨장애와 소아비뇨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또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배뇨실무관리이사,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학술이사 등 학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포토 뉴스



한국의학연구소, 후원금 3천만원 전달 (재)한국의학연구소가 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3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후원금 3000만원은 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아동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일상 기자



농업회사법인 영송, 영광곳간에 1000만 원 기탁 영광군 백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영송에서 지난 1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순천 비타민저전골 마을조합, 마을축제 수익금 기탁 비타민저전골 마을조합은 '저전이 들쭉들쭉 마을축제 수익금 100만 원을 저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저전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조선대 김춘성 총장 임명장 수여...내달 8일 취임



조선대학교 18대 총장에 김춘성 치의예과 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조선대는 김춘성 치과대

학 치의예과 교수를 제18대 총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총장의 임기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며 취임식은 내달 8일 해오름관에서 열린다.

김이수 이사장은 "새 총장의 젊은 리더십으로 학교에 새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며 "조선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신임총장은 "학생이 성장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김성 장흥군수 '스포츠 진흥대상' 리더상 수상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지역경제 발전 기여 공로



김성 장흥군수가 '2023 코리아 스포츠 진흥대상' 리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은 한국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진흥

에 모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단체와 기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됐다. 올해 스포츠 진흥대상은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

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김성 군수는 지역 행사가 있어 9일 열린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지난 13일 상패를 전달받았다.

김 군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 개발원 유치 등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장흥군 종합스포츠타운, 군립야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다.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군수는 대통령기 씨름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확산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흥=임민기 기자

광양발명교육센터 특허청장상 등 3팀 수상



광양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의 중학생으로 이뤄진 3개팀이 '2023 YIP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에서 2팀이 특허청장상, 1팀이 한국발명진흥회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

YIP(Young Inventors Program)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능력, 소통과 협업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더불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까지 갖춘 창의 발명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의 중·고교생 300여 팀이 지원했으며, 광양발명교육센터에서는 최종 본선 20팀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3팀이 선발됐다.

'C2'팀(광양마동중 조인서, 최아영, 정지원)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으며 '광양(光陽)'팀(광양중동중 장주하, 광영중 정준, 이서호)도 지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아무거나'팀(광양제철중 이민아, 최병준, 김지운)은 한국발명진흥회청장상을 수상했다. 수상한 작품들은 특허출원 예정이다.

담양 공무원 김성민 씨, 사진집 '어머니의 시간' 출간

노모의 세월이 짙게 묻어 있는 사진 60점 수록



공무원 사진작가 김성민 씨가 두 번째 사진집 '어머니의 시간'을 출간했다.

'어머니의 시간'에는 도시에서의 각박한 일상을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고향의 시간은 아직도 그리고 평온하게 흐르지만 무너져 가는 돌담

속에 노모의 쓸쓸함과 세월이 짙게 묻어 있는 '어머니의 삶이 담긴 공간' 60점이 수록돼 있다.

2020년 발간한 '돌담소리'에 이은 두 번째 사진집 '어머니의 시간'은 어릴 적 기억을 품은 한 장면, 고향의 풍경이지만 어머니 삶의 내면을 공간에서 기억하고 있다. 김성민은 그의 '돌담, 시간을 품다', '돌담소리' 작품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늘 공간과 대상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민 작가의 작품세계가 일관성을 지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유사한 토속적 공간의 재현 때문일 것이다. 그곳은 어머니의 소망과 더불어 삶 그 자체이다. 그 공간은

어머니의 운명을 함께 하는 숙명적인 공간이다. 그의 시선에 한 쪽의 민화처럼 사람 냄새가 더 짙게 묻어 있는 이유이다.

김성민 작가는 "공간 안에서 여백과 단순함은 삶의 단순화라는 이치를 깨닫게 한다. 빛으로 삶을 만지고, 빛은 작업이 고전적이겠지만 내 사진 작업의 일관된 개념이며 내가 짊어져야 할 사진적 사명"이라며 "사진을 통해 삶의 공간을 시각적 수단으로 해체하고 조립해 모든 사람과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어머니의 공간과 시간을 풀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김성민 작가는 광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으며 학위논문 '슬로시티 청산도 돌담사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담양=조승채 기자

호랑꼬두메 마을전시 '산수사색' 개최

19일까지 산수미술관...프로그램 참여 주민 작품 선포



동구는 오는 19일까지 산수미술관(동구 밤밭로 64-1)에서 산수2동 호랑꼬두메 마을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마을전시회 '산수사색(山水思索)'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산수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일환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전시 기간 동안 '동구 어반스케치'와 '호랑꼬두메 그림 그리는 정원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산수2동 마을 특화상품 개발을 위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공방형 마을굿즈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호랑꼬두메 마을굿즈 디자인상품들과 '플라워 힐링카페'를 테마로 한 전시 공간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의 '2023 문화마을코디네이터' 사업으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파견된 3명의 예술작가(김정화·오창복·박지수)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 도시재생의 문화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이다.

/김도기 기자

순천교육청 '찾아가는 독서캠프' 운영

체험형 독서활동으로 평생독자 토대 마련



순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평생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체험형 독서활동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1일 독서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프는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와 그림책을 부스 체험을 통해 만나고, 관련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력 증진도 목표로 하고 있다.

'찾아가는 1일 독서캠프'의 주요 내용은 △부스별 그림책 읽기 △책 주인공 찾기 △독서 퀴즈 △책도서 풀딩북 만들기 △그림책 아트 포인팅 전시 등이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여러 그림책을 읽고 관련 주제를 탐색하며, 각 부스별 주제에 따라 퀴즈 대회, 작품 만들기, 놀이 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순천인인초 학생은 "책읽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퀴즈도 풀고, 책 내용과 관련된 만들기도 하니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운 순천교육장은 "독서인문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평생독자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꾸준한 독서를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동명고 학생들, 따뜻한 연탄 나눔 봉사

학생·교직원 모금해 연탄 마련...소외이웃 5가정에 전달



광주동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광주동명고에 따르면 11월 감사의 달 행사로 진행된 이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다섯 가정에 연탄을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은 광주동명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지난 1주일간 모금을 통해 직접 마련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은 손수 연탄을 나르며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 활동에 참여했다. 옮겨올을 부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동명고 이명석 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인성 교육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